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학래, 편집인 : 최진용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광수·김성배·김학진·류영렬·배의영·
 이창규·임상준·Hong Sok(Brian) Kim)

농생대 학생들의 2012 여름방학 일기

봄, 여름 농활체험(농활대)

■ 농생대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고, 농업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을 매년 진행해 왔다. 올해도 봄과 여름 두 차례 부안에 다녀왔다. 농민들이 생생하게 들려주는 농사일의 고충, 직접 농사일을 도우면서 알게 된 농사일의 보람을 통해 농생대인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바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유화섭·산림환경학06)

■ 지난 여름방학에는 녹색사업단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글로벌 그린 리더)에 참가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전국 임학전공 대학생 대상으로 해외조림 및 산림보호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4학년이 되어 진로에 관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봉사활동(박병준·농경제사회학부08)

■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봉사차 라오스를 다녀왔다. 해외봉사는 평소에도 꾸준히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던 해피투게더 단원(고등학생, 대학생)들로 구성되었고 삼성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는데 추가되어야 할 기준들을 설정해 보는 좋은 경험이었다.

2012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 2012년도 8월(2012년 후기) 하계 학위수여식이 8월 29일 11시 교내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우리 대학은 학사80명, 석사96명, 박사77명을 배출하였다. 오연천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인본적 가치와 협력적 인간관계, 창조적 사고를 갖고 우리 사

회와 세계에 크게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양동혁(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07)씨는 “정들었던 캠퍼스를 떠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서울대 이름을 빛낼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서 정진해나가겠다”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헤드라인
 4~5면_농생대인사이드

6~8면_농생대 사람들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11면_기금출연
 12면_동정소식

농생대와 40년을 함께한 샌드페블즈의 여름방학



■ 이번 여름방학 때 뭐하고 지냈어요? 방학 때 가을에 정기 공연 및 8월에 홍대에서 했던 공연 준비로 매일 학교에 나와 밴드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 일주일에 얼마만큼 연습하셨나요? 그리고 밴드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은 없었나요? 평일 아침 10시에 나와 저녁 6시까지 연습했어요. 밴드다 보니 개인적인 연습도 중요하지만 같이 호흡을 맞추어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연습시간을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심하게 감기에 걸려 도저히 개인 연습을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연습실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 제일 좋았던 점은요? 아무래도 무대에서 사람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 열광할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죠. 8월 5일에 홍대 공연장에서 농대 밴드인 메아리, 쉬가독신과 함께 공연하였는데요. 대학 동기 및 친구들이 많이 와주어서 응원을 해주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11월 2일에 있을 샌드페블즈 정기 공연이 있는데, 홍대에서 공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하고 격려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기 김병탁

IT로 농업벤처 꿈 일구는 20대청년들의 ‘헬로네이처’

■ 헬로네이처는 20대 청년이 만든 벤처로 정보기술을 농산물에 접목시켜 농산물 산지에서 안방으로 배달하는 유통시스템의 혁신을 꿈꾸는 청년벤처이다. 가장 안전하고, 신선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일반 가정에 배달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은 각 지역의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을 만나고 좋은 농산물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 누비고 있다.

농촌으로 달려간 네 명의 엘리트들



헬로네이처(www.hellonature.net)는 농산물 직거래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회사다. IT와 웹서비스에 관심이 많았던 박병열 사장(포스텍 산업공학 · 06)은 같이 사업을 구상하던 좌종호(농경제사회학부 · 05)씨와 머리를 맞댔다. IT 활용도가 낮은 분야에 IT를 융합시켜보자는 의기 투합이었다. 그리고는 바로 ‘농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장 농산물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생산자에 대해 소비자는 생산자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들은 조사 끝에 ‘농산물 유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좌종호씨 과 후배인 조태환(농경제사회학부 · 10)도 합류했다. 셋과 친분이 없던 유준재(경제학과 · 05)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헬로네이처의 사업 설명을 보고 손을 들고 찾아왔다.

‘젊음의 열정’으로 난관 극복

창업멤버들이 십시일반한 자본금으로 만든 헬로네이처는 2012년 1월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당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나요? 농사일이 그렇듯 시간과 땀을 투자해야 정직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젊은 ‘열정’으로 난관들을 이겨낼 겁니다. “꿈과 열정을 먹고



‘헬로네이처(www.hellonature.net)’ 홈페이지

사는 헬로네이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온라인 먹거리 장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농생대 학생기자단 제기 김병탁

정진화 교수, 연구부처장 임명



■ 정진화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서울대학교 연구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2년간의 임기 동안 연구진흥정책 및 연구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정진화 교수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 까지 농생대 학생부학장을 역임하였다.

농생대와 알버타대학 학술교류 세부협약

■ 하종규(농생명공학부 학부장)교수와 유상열 교수, 김유용 교수, 이창규 교수 및 김희발 교수 등 5명은 6월 25일 캐나다 알버타 대학을 방문하여 2011년 12월에 있었던 워크샵과 올해 1월 체결된 학술교류 협정 등 학술교류에 대한 세부사항과 실현가능한 상호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알버타 대학 측에서는 Lorne Babiuk 연구부총장, John Kennelly 학장, Ellen MacDonald 연구부학장, 집행부 및 Ruurd Zijlstra 교수 등 실질적인 학술교류를 협의하기 위한 연구진들이 참석하였다.



농생대와 Shinshu University(신슈대) 학술교류 양해각서 체결

■ 우리 대학 이학래 학장 및 이전제 교수(산림과학부), 박영환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는 7월 17일 일본 Shinshu University(신슈대)를 방문하여 학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신슈대학에서는 Kunihiro Hamada 학장, Mashuhiro Tsukada교수, 김익수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체결식에서 두 대학 관계자들은 상호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학술·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학생교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신슈대 대학 부속 연구시설 및 산학협력 업체를 방문하였다.

농생대와 Ecole d'Ingenieurs de Purpan 대학 학생·학술 양해각서 체결

■ 우리 대학은 7월 27일 농생대 소회의실에서 Ecole d'Ingenieurs de Purpan 대학과 학생·학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피르팡 대학의 Marie-Odile BISCH(국제협력 부학장), Djamel Ali-haimond(교수), 우리 대학에서는 이학래 학장, 최진용 부학장이 참석하였다. Ecole d'Ingenieurs de Purpan 대학은 프랑스의 고등 교육기관의 연합 대학으로 EI Purpan을 포함하여 ESA, ISA, ISARA의 4개교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ESA는 1994년 우리 대학과 MOA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MOA는 만료되었으나 그 교류의 연장으로 EI Purpan과의 학술교류를 시작하여 향후 FESIA Consortium 소속 4개 학교 모두 교류를 확대 할 예정이다.



서울대-청도농업대 공동 심포지엄

■ 농생대 안용준 교수, 임정묵 교수, 이창규 교수 및 김희발 교수와 수의대 류판동 학장, 서강문 부학장 및 이병천 교수 등 7명은 2012년 8월 22일 중국 청도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서울대-청도대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농업과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였고, 청도대학의 Li, Bao-Du 총장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학술 및 인적 교류를 위해 협의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청도대와 수의대간의 학술교류를 위한 공식 MOU 체결식을 가졌다. 서울대 농생대와 청도대간에는 지난 4회 동안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학술 및 인적 교류를 지속해 왔고 앞으로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오상 교수, 학생부학장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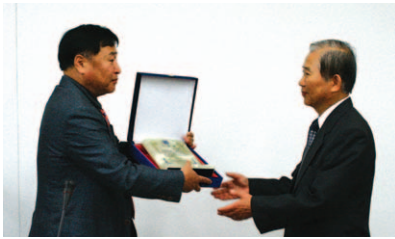
■ 전임 정진화 학생 부학장께서 농생대 학생행정업무를 잘 이끌어오셨지만, 서울대학교 본부의 연구부처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어 그 후임으로 부족한 제가 학생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 학장님과 부학장님들은 이미 1년 전부터 팀을 꾸려 농생대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노고에 뒤늦게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학생업무는 우리 농생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재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소중한 업무입니다. 전임 부학장님이 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학과공부에서 많은 성취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농업생명과학분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관련 업무 경험이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은 만큼, 농생대 가족 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사협의회 및 일반직원 학사행정 워크숍

2012년도 상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KAL호텔에서 개최되어 농생대의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반직원 학사행정 워크숍이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울릉도 대아리조트에서 개최되어 각 부서의 업무 보고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현정오 교수(산림과학부) 정년 퇴임식

우리 대학은 9월 7일 대회의실에서 현정오 교수(산림과학부) 정년교수 퇴임식을 거행하였다. 현정오 교수는 1983년 본교 입학과 조교수로 부임해 29년 5개월간 임목육종학, 집단 유전학 및 보전유전학 분야의 강의 및 연구를 하였다. 현정오 교수는 한국임학회 총무이사, 한국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농업과학협회 총무이사, 한국육종학회 부회장, 한국토종연구회 부회장, 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회(IUFRO)의 국제평의원회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물발자국 심포지엄

8월 9일 호암 교수회관에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을 위한 심포지엄-농업분야의 물발자국 도입과 전망”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는 최진용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가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농업분야의 수자원 사용에 따른 물발자국 개념과 향후 농산물 물발자국 활용방안 및 전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김성일 교수(산림과학부), Victor Teplyakov 교수(산림과학부)

North Korea Reforestation: International regime and domestic opportunities 공동 출간

김성일(산림과학부), Victor Teplyakov(산림과학부)교수가 공동으로 “North Korea Reforestation: International regime and domestic opportunities”라는 제목의 영문 책을 출간하였다 이 출판기념회는 9월 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미디어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여름방학 청소년 농생명과학 프로그램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공학캠프’



■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제8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생명공학 캠프”가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생명공학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유발하고 생명공학 및 관련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신문의 주최, 농생대 주관으로 매년 여름방학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각 기수별 2박 3일의 일정과 2기에 걸쳐 90명의 학생이 캠프에 참가하여 생명공학과 관련된 농생대 교수진의 특강을 듣고 광합성과 호흡, 주방용품을 이용해 식물 DNA 추출하기 등의 실험실습활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WCU 바이오펜레이션 연구성과

WCU 플러 베이저 교수 연구성과

농생명공학부 WCU 플러 베이저 교수 연구팀은 5월 12일 임신부의 체내에서 태아로 공급되는 영양물질 중 과당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 과학원회보(PNAS) 2012년 5월호에 실렸다. 미국 텍사스 A&M대 석좌교수인 베이저 교수는 2009년부터 서울대 연구중심대학(WCU)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재 농생명공학부에 소속돼 있다. 태아의 뇌, 신경 등 중요 부분은 임신 초기에 대부분 발달한다. 이 기간 모체의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양분이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가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이제까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던 영양분은 포도당이였다. 과당은 태아의 혈관과 양수에 다량 존재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연구팀은 돼지를 이용해 과당이 태아의 영양외배엽을 빠르게 증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영양외배엽이란 수정란이 다세포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반포기의 바깥층을 가리킨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태반이 된다. 과당은 또 태반·요막·양막도 건강하게 만들어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태아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기능성 식품과 보조제 개발이나, 임신 초기 자연유산을 극복하는 의약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플러 베이저 교수

WCU 한재용 교수(농생명공학부) 연구성과

WCU 한재용 교수(농생명공학부)팀은 닭의 형질을 안전한 방법으로 바뀌 형광빛을 내게 하는데 성공하여 5월 29일자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실렸다. 한재용 교수 연구팀은 형광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피기백’이라는 DNA틀에 끼운 뒤 닭의 원시생식세포에 넣었다. 이 세포는 90% 이상이 정상적으로 분화해 닭으로 자랐다. 유전자를 조작한 부위에 따라 부리나 발, 머리, 가슴, 날개에서 각각 녹색 형광빛을 냈다. 각 형질이 다음 세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했다. 지금까지 닭의 형질을 바꿀 때 바이러스를 DNA틀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바이러스에서 유래한 DNA틀이기 때문에 돌연변이 우려가 있고 효율도 낮아 의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한재용 교수는 “피기백은 곤충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 형질전환한 닭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용 교수

CALS Global Challenger

농생대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학마다 CALS Global Challenger를 선발하여 해외 선진 농산업시설 탐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4개팀 총 7명의 학생이 제9기 CALS Global Challenger로 선발되어, 스스로 결정한 탐방 주제와 일정에 따라 각 팀별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우수한 농산업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탐방에 앞서, 6월 26일 이학래 학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무사히 탐방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다짐하였다.



농생대와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연구협정 체결



■ 우리 대학과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김용희 사장)는 7월 18일 서울대학교 총장실에서 ‘고추의 분자육종 및 생명공학분야의 연구 협력’을 위한 연구협정을 체결하였다.

농우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 동안 2억 5,000만원의 연구협력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두기관은 연구 협정을 통해 고추의 유전체 육종을 위한 기반기술 구축과 우수 집단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과제를 수행해 새로운 고

추 신품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 백남천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최도일 교수(식물생산과학부), 강병철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참석하였고, 농우바이오 측에서는 김용희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농학 연구의 산실, 수원 농장을 탐방하다!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83%로, 1981년 이후로 최저치다. 곡물 자급률 또한 2010년 27.6%에서 2011년 22.6%로 5% 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 목표인 ‘2015년 전체 곡물 자급률 30%’ 달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며 “쌀 자급률도 98%까지 맞추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 농생대 학생기자단은 우리나라 농산물 연구의 메카인 수원 지역의 농장을 방문하여,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농생대 주요 연구 분야

벼 - 현재 이곳에 16,000여 종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원생들이 상주하며 벼 품종 개량을 통해 병해충 내성에 강하고, 생장이 빠른 품종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흑미, 적미, 녹미 등을 개발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억새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잡초에 의한 피해 중 억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농장의 일부 지역에 억새를 재배하여 억새의 종류별로 따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고추 - 파프리카, 피망 등 800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다른 품종을 교잡하여 새로운 품종 개발에 애쓰고 있다. 또한 요즈음에는 관상용 식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감에 따라 관상용 고추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시설

점적관수 : 온실 및 비닐하우스 등에서 작물 근처에 작은 관을 심어 두어 자동타이머를 통해 일정량의 양액(작물의 생육에 꼭 필요한 무기양분을 각각의 흡수량의 비율에 맞추어 물에 용해시킨 것으로 다른 말로 배양액이라고 함)을 관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작물들에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며, 타이머 및 양액의 농도를 조절하여 작물 생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온실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 현재 A동 온실에서는 양분 및 물의 양뿐만 아니라 온도 및 광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온도와 광량까지도 일정량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사계절 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 콩의 경우 1년에 3세대를 교잡할 수 있어서 새로운 육종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식물공장 : 양상추 및 상추 등과 같은 품종의 작물을 실내에서 형광등과 인공 광도로만 키워냄으로써 햇빛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는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의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지역에서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현재 이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설치의 고비용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작물의 생장이 빠르고, 흙이 아닌 물에서 재배하여 깨끗한 상태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설 단가를 단추고, 대량화라는 실용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8월말 불라벤과 덴빈 태풍에 의한 피해는?

다행히 태풍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9월 3일 방문시 인부 여러 명이 태풍에 쓰러진 벼를 일으키는 모습도 보였으며, 허문희 교수가 통일벼를 생산했던 건물(현재는 건조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의 창문도 깨져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교에 의하면 태풍 곤파스 때보다는 피해가 적다고 한다.

탐방 후 느낀 점

1970년대 통일벼 이후로, 우리나라 농산물 연구의 산실로서 벼, 고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많은 작물 분야의 품종 개발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특히 식물공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현실 앞에서,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느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질 것이므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설물 개발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농장전경



식물공장



농장직원분들과함께

RANET.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이사 박영범(농경제 · 84)동문을 만나다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농업네트워크(RANET)는 농업 컨설팅 기업이다. 사단법인협동조합 연구소, food&agri마케팅, 팜넷 등 여러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강원, 충청, 영남, 전남, 전북에 지사를 두고 있다. 자본금도 10억에 이르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농업컨설팅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회사의 설립과 비전

회사는 학창시절 박영범(농경제84)대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박영범 대표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자본금을 모아 출범한 것이 지금의 지역농업네트워크다. 설립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전무한 ‘농업컨설팅’이라는 분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은 경영초기 연봉 ‘1200만원’을 목표로 힘겹게 회사를 운영해왔다. 지급받은 월급도 다시 회사 투자금으로 돌리면서 힘겨운 생활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호전되었고, 14년이 흐른 지금은 어엿한 중견기업이 되었다. 회사의 설립과정처럼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운영된다. 이 원칙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운영에서 엿볼 수 있다. 근무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적으로 주주가 되도록 하고 있다. ‘1주당 1표를 가지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1인당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인 사람 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어느 기업보다 민주적이며, 사람 중심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박영범 대표

농업의 현실

가격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치를 계량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때론 시장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쌀 한가마니의 가격은 약 15만원이다. 껄럭시 S2의 출고가는 847,000원이다. 껄럭시 한 대의 가격은 한 사람이 약 6년 동안 소비하는 쌀의 양과 같다. 가격과 가치의 이러한 괴리는 자본이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박영범 동문은 말한다. 최근 월가에서 벌어진 1% vs 99% 시위는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은 항상 정상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며, 99%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박영범 대표를 필두로 한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이러한 모순점의 끝에 있는 농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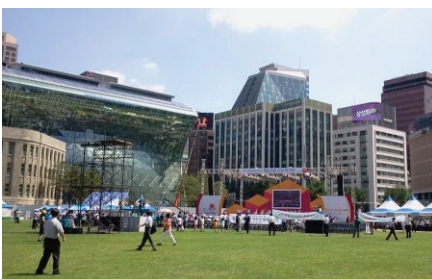
현실 경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한다. 경영학에서는 수요를 창출한다고 한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요즘 현실에서는 공급이 있고 수요를 창출한다. 사람들이 원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건이 사람을 사게끔 만드는 현실이다. 이 또한 자본이 사람보다 우선이 되는 현상에서 온다.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농민이 생산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지역농업네트워크이다. 지역농민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네트워크 시스템 말이다.

이제는 어엿한 기업 반열에 올랐지만 박영범 대표의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모른다.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날까지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미래에는 10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 기존의 생활방식은 모두 50~60대에 은퇴하여 70세까지 사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다.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더 길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100살이라는 긴 인생에서의 정점은 바로 눈앞에

있는 성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 후배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하여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열심히 갈고 닦는 일에 정진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 자신이 성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열쇠이다.”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행사



지역농업네트워크 직원 워크샵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두 번째 주인공은 환경재료과학전공에서 제지공학 및 종이물성학을 연구하고 있는 윤혜정 교수!

윤혜정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 및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2002년도에 우리 대학 환경재료과학과 전임강사로 임용, 2004년도부터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윤혜정 교수는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여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었는데, 고전 작품은 나이가 들수록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윤혜정 교수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



데미안

고전 작품 읽기를 좋아하는 윤혜정 교수가 추천한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1919년에 쓰여진 작품으로, 신앙심이 깊고 성결하며 예의바른 부모 밑에서 자란 싱클레어가 청소년기에 어두운 세계로 빠져들면서 내면의 선과 악의 세계에서 방황하다가 데미안을 만나 방향을 마치고 참된 자아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때문에 데미안은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꾸준히 청소년 추천 도서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데미안을 책장에서 꺼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책의 두께와는 달리 담고 있는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기에 대부분 읽다 포기하거나 다 읽었어도 그 의미를 충분히 느끼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윤혜정 교수 역시 “처음 데미안을 읽었던 게 중학교 때였어요. 그런데 그 때는 세상에 별 관심이 없었고, 책의 두께가

두껍지 않아 단순히 끝까지 읽어야겠다는 생각으로만 읽어서 그런지 크게 와 닿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르만 헤세의 다른 작품인 ‘수레바퀴 밑에서’가 저한테는 더 마음에 와 닿았죠.”라고 말하였다.

그녀가 데미안을 다시 읽은 건 대학생 때였다. 내용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읽게 되었다고 했는데 뜻밖에도 중학교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기 내부의 소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과정이 선과 악의 형태로 그려지고,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는 것, 그런 성장의 과정이 눈에 들어온 거죠. 소설 속 주인공 싱클레어처럼 기록이 심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물을 때에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혜정 교수는 “오래도록 사랑받는 고전은 다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같은 책을 읽어도 10대, 20대, 30대에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라며 고전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하였다.

윤혜정 교수에게 입시 경쟁에 시달리느라 20대가 되어서야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청춘들을 위해 이 책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데미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구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처럼 여러분들도 알, 세계를 깨고 나오기를 바란다. 자기의 세계에만 갇히기보다는 자신을 깨는 것, 즉 자신을 정말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대에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 20대에는 취업을 위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피해의식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만, 온전히 사회구조적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싱클레어가 방황하다 데미안을 만나 참된 자아를 찾아가듯이 답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은 힘든 과정이지만 이게 뒷받침 되어야만 더 높은 단계의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데미안’을 추천해 준 윤혜정 교수에게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추천한 주인공은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최영진 교수. 그녀에게 추천 이유를 묻자 “최영진 교수님은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그냥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은 이미지뿐이지만요. 사실 저는 책을 읽을 때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은 재미있는 책을 더 많이 읽거든요.”라고 대답하였다.

최영진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뉴시스 2012년 07월 06일 금요일〉

‘시설농업에 대한 집중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

“FTA 체결 국가 늘면 농업분야 중 ‘시설농업’이 가장 경쟁력 높아”

“외국은 미사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데 우리나라는 소총으로 싸우는 격입니다.” 손정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시설농업 현주소에 대한 일침이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설농업 분야(산업별 기준) 중에서도 온실 외형 등 생산기반시설과 수경재배 등 재배시스템, 작물관리기술 등에 주력해왔다.”면서 “반면 향후 농지·농업인구 감소, 물 부족 등 농업위기와 직결된 관수자재 및 환경조절기술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 교수는 관련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아쉬워했다. 손 교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시설농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농정이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 쪽에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설농업을 주도하는 농자재회사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늘어나게 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이 바로 시설농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농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필

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설농업 분야에서 그리 뒤떨어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이내에 이스라엘을 능가할 만한 시설농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손정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앞으로 FTA가 계속 진행되면 농업 분야에서 시설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FTA가 시작되면 농정은 보호차원과 공략차원으로 나뉘는데 시설농업은 비교적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필연적으로 농업을 복지관점이 아닌 산업으로 보고, 농식품부에서도 농업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면 시설농업에 대한 집중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국부 유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이에 대한 적극적인 R&D(연구개발)와 산업체 부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문화일보 2012년 06월 08일 금요일 037면〉

아프리카 굶주림 여전... 구호단체·기업들 더 관심을

모국 온 한국인 ‘아프리카 추장’ 한상기 박사

“아프리카 굶주림 여전...
구호단체·기업들 더 관심을”

“제가아프리카를 떠난 이후 현지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졌어요. 구호단체는 물론 기업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아와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오지마을을 찾아 식량증산과 교육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한국인 슈바이처’로도 불리는 한상기(79·사진) 박사가 최근 모국을 찾았다.

한 박사는 지난 1971년 서울대 교수(당시 농과대 조교수)라는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이용해 인류를 돕겠다는 일념 하나만 지닌 채 나이지리아로 건너 갔다. 그는 현지에서 국제열대농학연구소(IITA) 구근작물개량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인 카사바를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개량, 아프리카 식량난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1982년 영국 기네스 과학공로상을 받았으며 1983년에는 나이지리아 이키레 마을 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그의 이 같은 삶은 동화책 ‘까만 나라, 노란 추장’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한 박사는 61세가 되던 1994년 나이지리아 현장에서 물러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거주 중이다.

“한국에 있는 친지들이 팔순을 기념해 초청했어요. 5년 만의 고국 방

문입니다. 이번엔 좀 폭 쉬고 싶었는데 여기 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아요.”

한 박사에게는 어린이 팬이 많다. 동화책 ‘까만 나라, 노란 추장’ 외에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도 ‘사랑으로 거둔 열매’란 제목으로 한 박사의 삶이 소개돼 있다.

“기아에 빠진 아프리카에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식량을 증산하는 농법을 가르쳐 줘야 해요. 농기구도 지원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한 박사는 농업지도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15명을 비롯, 무려 7000명의 현지 농학도들이 그의 배려로 영농교육을 받았다.

“참 애석해요. 우수 농업지도자에게 수여하던 ‘한상기상’이 2회만 수상자를 낸 채 중단됐어요. 현지 식량증산 촉진을 위해서라도 다시 복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큼니다.”

한 박사는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 국제 열대구근작물학회 회장, 세계 식량기구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비의 땅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격언’ 등이 있다.



한상기(농학53)

농학 분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한인규 명예교수, 1억원 쾌척



우리 대학은 9월 3일 농생대에서 한인규 명예교수(현 재단법인 목운문화재단 이사장)와 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하는 약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 출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농업생명과학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졸업 후 동일분야에 진출하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인규 명예교수는 축산학과 출신으로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고, 1965년부터 2000년도까지 35년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또한 세계축산학회 회장(1993~199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2001~2004)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농생대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00. 01. 01 ~ 2012. 09. 15까지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명단입니다.

기금출연(2012.01.01~2012.09.15)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정진화 교수(농경제학)	3,000,000
강석권 교수 유족 10,000,000	환경지도자고위과정 5,000,000	서울신문사 3,000,000	
정구민(동물생명공학 82) 14,000,000	(주)에이피디 5,000,000	(주)넥스캠 3,000,000	
	(주)원예코사이언스 5,000,000	오평환경정금 적립금 2,921,200	
	(주)한성T&I 4,000,000	최고농업정책과정 2,000,000	
	(주)프로컬코리아 3,000,000	(주)씨에스텍 2,000,000	
	(주)오리엔탈드림 3,000,000	(주)숨에서 1,500,000	
	(주)에이티랩 3,000,000	이경국(농학 78) 1,000,000	
	(주)녹색식물연구소 3,000,000	윤원희(김유용교수 부인) 1,000,000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기금출연(2000.01.01~2011.12.31)

(유)PPG코리아	강미정 농가정책	김기선 (74)원예학	김영복 (72)농공학	노희명 (76)농화학
(재)목운문화재단 한인규 (52)축산학	강병철 (86)원예학	김동태 (52)축산학	김영삼 (58)농학	농생대 기획실
(재)유연장학회	강예안 학부모	김동윤 (48)농경제학	김영성 (59)농경제학	농생대 동창회
(주)내츄로바이오텍	강창희 (66)농경제학	김동태 (62)농경제학	김영호 (73)농생물학	농생대 수목원
(주)생명의나무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명중 (70)임산공학	김유용 (83)축산학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주)서울신문사	고종열 축산학(박사) (87)	김무열 (64)농공학	김유용, 윤원희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주)신농	고희중 (76)농학	김민관 (82)농화학	김인식 (64)농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주)케이티엔에프	광주MBC	김병동 (62)농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농학과 동기회
(주)하이스	구지환 (81)농학	김상곤 농업교육	김정환 (75)농화학	농협중앙회
53학번 동기회	권숙향 학부모	김상돈 (44)축산학	김종무 (59)농학	농화학 동문회
59학번 동기회(재미회원)	권정혁 (60)농학	김석구 (55)임학	김진모 (81)농업교육	도운회 (61)농화학
69학번 동기회	권철 (59)축산학	김성배 (85)농생물학	김진우 (06)산림과학부	동화특수산업(주)
69학번 여성동기회	김경옥 (68)농공학	김성수 (63)농업교육	김진의 (59)축산학	류관희 (63)농공학
70학번 동기회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성일 (76)임학	김태수 (66)임학	류덕희 (주)경동제약 대표이사
71학번 동기회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수민 (03)환경재료과학	김현중 (83)임산공학	류순호 (55)농화학
81학번 원예동문동기회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영명 농학	김호택 (58)농경제학	무명 (55)농공학
가나바이오텍(주)	김규옥 학부모	김영도 (68)축산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문성훈 (86)식품공학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근숙 농화학	김영배 (85)축산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문지애 (77)식품공학

기금출연(2012.01.01~2012.09.15)

문태화 (71)식품공학	오기봉 (78)농화학	이시혁 (80)농생물학	정일영 (62)축산학	(주)한성T&I
바이오사이드테크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이은규 (77)농학	정중훈 (77)농공학	(주)해냄테크
박관화 (62)농화학	온경용 (79)원예학	이완주 (63)잠사학	정주상 (77)임학	(주)현우그린
박기주 (69)농업교육	우리농장	이용창 (99)생물자원공학부	정진규 (65)농공학	(주)FC
박낙희 (83)농업교육	우무일 (64)임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정현석 (63)농화학	(주)SK텔레콤
박시우 (65)농생물학	우보영 (57)임학	이우신 (75)임학	정희석 (60)임학	직업과정CEO 과정
박원규 (60)농공학	우석상 (83)임학	이인보 (65)농경제학	제연호 (86)천연섬유학	진정우 학부모
박은우 (73)농생물학	원광엘에프디(주) (86)농화학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조도현 서울대직원	차상석 연세대
박정현 (64)농업교육	원후식 (56)농생물학	이장희	조민성 (97)농경제학사회학부	채수근 (54)잠사학
박종국 (57)농화학	유상열 (78)식품공학	이재갑	조성인 (77)농공학	채영암 (60)농학
박창서 (61)농경제학	유상철 (64)축산학	이재진 (65)농학	조재영 (39)농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박창호 (58)임학	유원예코사이언스(주)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조중수 (66)잠사학	최상호 (78)식품공학
박필선 (90)산림자원학	유한킴벌리	이정식 (69)원예학	(주)고추와육종	최연홍 (56)잠사학
박효근 (59)농학	윤계섭 (53)임학	이정훈 (00)식품생산과학부	(주)내추로바이오텍	최윤재 (73)축산학
반성환 (50)농경제학	윤여창 (74)임학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주)녹색식물연구소	최인규 (80)임산공학
백남천 (81)농학	윤용인 (57)농가정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주)누보	최정우 (00)생물자원공학부
백중현 (79)임산가공학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중용 (77)농공학	(주)밀투밸런스	최진용 (84)농공학
부경생 (60)농생물학	윤익건설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주)바이오포아	최홍림 (71)농공학
브이에프티	윤해정 (90)임산공학	이철우 (61)농경제학	(주)베스트텍코리아	투플러스코스팜(주)
서문원 (74)농학	윤희진 (62)축산학	이춘만 (73)임학	(주)루인바이로먼트엔텍	패션푸드(주)
서민영 서울대직원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충한 (09)동물생명공학	(주)비르앤마이크로	프로챌코리아
서병륜 (69)농공학	이광희 (75)농학	이태호 (74)농경제학	(주)비비씨엔에프	피타코이드(주)
서울신문사	이기훈 (91)천연섬유	이필우 (53)임학	(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허종규 (75)축산학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이내수 (58)농경제학	이한강 (69)임학	(주)생명과학기술	한국마사회
서학수 (65)농학	이돈구 (65)임학	이현수 (60)농화학	(주)센소메트릭스	한국전파기(주)국(주)
성호경 학부모	이동근 (82)조경학	이형주 (66)농화학	(주)세에서	한상윤 (72)농업교육
손정익 (75)농공학	이동찬 (82)농공학	이홍 (70)농화학	(주)신택	한재용 (80)축산학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이두이 (66)농학	이희석 (57)농생물학	(주)씨이퍼인텔리전스	한준호 (64)임학
신재익 (60)농화학	이득용 (52)농경제학	이희재 (78)원예학	(주)아데나	현의승 (61)잠사학
신젠타코리아(주)	이명훈 (69)농경제학	일본동문회	(주)에스씨아이	현정오 (66)농생물학
신한풍 (59)농학	이무하 (67)축산학	임경순 (54)축산학	(주)에스씨에프	현진호 (88)천연섬유학
신현호 (79)원예학	이미경 (74)농화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주)에스이오	홍상욱 (83)원예학
신희순 (69)잠사학	이미순 (56)농학	임용재 (67)농경제학	(주)에이티랩	홍인식 (79)원예학
심용섭 (70)농업교육	이병근 (67)농경제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주)에이피디	홍종일 (80)축산학
셀테크	이병국 (64)농생물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주)코엘이디자인	홍중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안동만 조경학 교수	이병일 (57)원예학	장우상 (63)잠사학	(주)에프엔피	화인엔터프라
안동환 (86)농경제학	이삼희 (66)농화학	장진성 (78)임학	(주)여러분의 천년초	환경지도자교육과정
안성규 (76)임학	이상기 (79)농화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주)오리엔탈드림	황인규 (76)농생물학
안원영 (55)임학	이상영 (65)잠사학	장태평	(주)윌테크	CALSP
양태진 (85)원예학	이상우 (89)임학	장학균 학부모	(주)이레텔	KBS한국방송
양호석 (57)농화학	이상훈 (88)조경학	장휴동 (59)농경제학	(주)이지코스	MBC문화방송
엄기덕 (46)농화학	이석하 (78)농학	재일동창생	(주)장수로	RNL생명과학(주)
에스엠에이엔지(주)어링(주)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전창후 (83)원예학	(주)추비로	
에스위타(주)	이수정 (65)농가정학	정구민 (84)축산학	(주)프로챌코리아	
연은실	이승구 (66)농화학	정민섭 (59)임학	(주)하이스	
염동해 (74)조경학	이승환 (80)농생물학	정윤환 (56)임학	(주)한국에그로바이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동문동정]

▶ **이형주**(식품공학77)동문은 7월 5일 LH 경기지역 본부장에 임명되었다.

▶ **윤창영**(농학76)동문은 8월 14일 KT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에 임명되었다.

▶ **김영수**(산림자원학87)동문은 7월 10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장에 임명되었다.

▶ **김정환**(농학74)동문은 7월 29일 (재)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표이사로 취임되었다.

▶ **이봉훈**(농공학74)동문은 8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로 취임되었다.

▶ **김영춘**(임학77)동문은 8월 30일 부산국제재단 사무처장에 임명되었다.

▶ **김의경**(임학77)동문은 9월 3일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장으로 취임되었다.

[교수동정]

▶ **김원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7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농업정책을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토론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농업현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 **이인복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세계농공학회 (CIGR)-유럽농공학회 (EurAgEng) 합동국제학술대회에서 “Trend on CFD Application in Agriculture”라는 주제로 invited keynote lecture를 수행하였다.



▶ **이창규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012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북해도대학에서 개최된 Conference on Agricultural Biodiversity and Sustainability 2012에 참석하여 구두발표를 하였다.



▶ **류영렬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국제저널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impact factor: 3.4)의 Editorial Board Members과 국제저널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impact factor: 4.7)에서 탁월한 리뷰어로 선정되었다. (2011 Editors' Citation for Excellence in Refereeing for Global Biogeochemical Cycles)



[동창회 소식]



▶ 2012년 7월 4일(수)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농생대 75-1동 203호 세미나실과 상록인 명예의전당 전시실에서 2012년 상록인 명예의전당 헌정식을 거행하였다. 이 헌정식에는 윤근환 동창회 고문을 비롯하여 5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였다.

헌정식에 앞서 203호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상임부회장의 의에서 정운환 동창회장과 이학래 학장의 축사에 이어 윤근환 동창회 고문으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들은 후 이은종 상록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헌정자 선정 경과를 보고받았다. 2012년에는 설동섭(축산 53) 임종성(잠사 57) 심경구(농학 59) 세 동문을 헌정하였으며 헌정자와 가족으로부터 간단한 헌정 소감을 들었다.

상록인 명예의전당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한 후 명예의전당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설동섭 헌정자의 찬조로 신림동 금비에서 저녁 만찬을 하였다.



★ 소식을 통해 알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대외협력·홍보팀)
(T. 880-4510, calsw@sn.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5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7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식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780 F.873-2318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공중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델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3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73-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80-4986 F.873-1361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10 F.873-7729

작물유전체기반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73-4528

교육연수원 T.880-4844 F.873-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